

학교생활

온라인 수업 지각 시 불이익이 있나요?

중2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알람을 못 듣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카톡으로 하는 출석 체크를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미인정 지각이라고 하시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서 내신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강미숙(44·경기 고양시 화정동)

A

미인정 사유로 감점 처리되면 고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0학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에 따르면, 출결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 하되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내에 최종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이나 특성, 원격 수업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의 출석 확인 방법이나 출석 인정에 대한 기준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학하는 학교의 출결 규정을 정확히 알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나 교사가 정한 출석 시간이나 방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미인정 사유로 처리돼 미인정 지각·결과·결석 등으로 출결 상황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미인정 사유로 인한 조퇴·지각·결과·결석은 고등학교 진학 시 내신 성적 산출에 반영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중 백원석 교사는 "고입에서 출결은 기본으로 만 점을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미인정 사유로 인해 출결에서 감점이 발생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아주 근소한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출결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MORE TIP

중학교 내신 성적에서 출결 반영 방법은 시·도별로 다소 다릅니다. 보통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 내신 성적의 일정 점수를 감점 처리하는데, 경기도는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를 합쳐 3회당 미인정 결석 1일로 계산하되 학년 단위로 미인정 결석 일수를 산출합니다. 즉,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를 동일 학년 단위로 합산한 횟수가 0~2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0일, 3~5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1일, 6~8회인 경우는 미인정 결석 2일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입시

A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아래 여러 세부 전형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 입학처 한정호 입학사정관은 “연세대는 모집 요강 첫 페이지에 복수 지원이 가능한 6개의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아래 면접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 균형 전형이 있다. 이 중 면접형을 한 묶음으로,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 균형을 한 묶음으로 해 묶음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묶음 내에서는 1개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의 경우 수시 모집 모든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 김상혁 입학사정관은 “지원 자격 충족 시 계열 모집, 학과 모집, 고른 기회, 논술, 농어촌, 이웃 사랑 등 수시 원서 6장을 전형별로 모두 성균관대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같은 계열 모집 전형 내 인문과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하는 것처럼 동일 전형 내 서로 다른 모집 단위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원서 결정 시 반드시 지원 희망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고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같은 전형에서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고2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수시 원서를 최대 6장 쓸 수 있고 같은 대학이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등 전형을 달리하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세부 전형끼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영은(48·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MORE TIP

반드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할 때 전형별로 중복 지원하거나, 수시 납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예측한 정시 지원 가능 수준보다 높은 대학에만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 일부 원서를 남기기보다는 지원하려는 대학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